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예루살렘의 시장을 지낸 우리 루폴리안스키<sup>1</sup>를 비롯해 많은 퇴직 시 관료, 변호사, 기술자 및 건축자들이 연루된 지방 정부 부패가 최근에 밝혀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언짢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 최초로 초정통파 시장이 된 루폴리안스키는 예루살렘 시 의회의 영향력 있는 의원이자 도시 개발-계획 위원회장으로 지내던 1989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저명해졌습니다. 국가 범죄 수사팀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 기간 동안 루폴리안스키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 논쟁이 많았던 “홀리랜드(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남부의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데에 썼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계획은 엄청난 반대 여론과 필수 공공 시설 지원의 불법적 감축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이익 증대를 위해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다른 많은 정치인들이 “홀리랜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주장하는 한편, 루폴리안스키는 2003년에 또한 예루살렘 시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정치계 활동가들에게 뇌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자원 단체 하나도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폴리안스키가 1976년에 직접 세운 “야드 사라<sup>2</sup>”에는 6,000명 이상의 일군 및 자원자들이 있는데,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혐의들이 정말이라면, “야드 사라”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루폴리안스키가 “홀리랜드” 및 다른 개발 계획과 관련된 뇌물들을 거액 기부의 형태로 받아낸 뒤 “야드 사라”의 재정 체계를 통해 세탁했을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

부패의 고리는 심지어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의 부패로 수사를 받았기에, 경찰은 이제 그가 “홀리랜드” 사건의 주 용의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활동 혐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올메르트는 확고히 말했지만, “홀리랜드” 건설 계획의 승인과 뇌물 거래 혐의는 모두 올메르트가 예루살렘 시장으로 있던 당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前) 시장 우리 루폴리안스키와 전 예루살렘 도시 공학자 우리 쉬트리트<sup>3</sup>가 독립 기념일 행사 전 날에 수감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예루살렘 시청 관리인들과 공무원들을 동요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또 경찰 심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동료 하나는 올메르트와 루폴리안스키 시정 하에 예루살렘 시청에서 수석 기술자로 일해 왔는데,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 수년 간의 의혹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금번 사건에 놀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

<sup>1</sup> Uri Lupolianski

<sup>2</sup> Yad Sarah: 사라의 손

<sup>3</sup> Uri Shitrit

그렇지만 여전히 정직과 청렴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따금씩 철저한 수색이 있어야 지방 정부의 세력을 견제하여 신앙 없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야망을 제어해 공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실상 두려움은 형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요일 4:18).”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의 형벌과 고난을 인해 즐거워해선 안 되며, 메시아의 법도를 따라 섬김의 살아 있는 예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슬프게도 중동에서는 부패가 생활의 일부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2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과 PLO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가 70억 달러를 횡령한 이야기들은 유명합니다. 사실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국가로 중동에서 걸출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부정을 막는 기준이 높고 법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큰 소요를 낳고 있습니다.

시 14 편은 부패와 부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와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부패한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일으키는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 강력한 비유를 씁니다. 6 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 “너 행악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구나”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야드 사라”에 들어온 기부금을 뇌물과 부정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루폴리안스키의 혐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께서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후반 절들을 읽으면 소망이 충만해집니다. “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도다!” 주께서는 모든 것들이 말해지고 행해질 때, 부패와 악은 팽배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딤후 2:1-3의 격려를 따라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예루살렘은 예슈아께서 거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적 전쟁의 핵이며 가장 많은 기도와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에 굳게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슈아께서 우리 왕, 구원자, 주님이 되시도록 말입니다.